

## 그들은 대홍수 중에서 운 좋게 구원받았다



이 몇 집은 파룬궁수련생을 구출하기 위해 서명한 적 있는데, 집에 물이 매우 적게 들어와 손실을 보지 않아, 지금은 돌아갈 집이 없는 고향사람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밍후이왕] 현재 중국에는 천재인화가 끊임 없다. 지난 8월 16일 랴오닝(辽宁)성 푸순(抚顺)시에 갑자기 큰 홍수가 들이닥쳤는데 그 중 칭위안(清原)현 난커우첸(南口前)진에서 받은 피해가 가장 컸다. 거리 양쪽 가게는 전부 진흙으로 채워졌으며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난커우첸촌의 마을 사람들은 ‘홍수가 너무 갑자기 들이 닥치고 너무 맹렬하여 전혀 피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 6살 어린이의 지혜로 한 가족 3식구가 구원되다

난커우첸 마을 파이프공장 부근에 살고 있던 한 가족 세 식구가 홍수가 밀려올 때 모두 지붕에 올라갔다. 이때 마당까지 들어온 홍수는 처마널 높이만큼 차올라 집이 금방 물에 잠길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 긴급한 관두에 6 살 어린 여자가 지혜롭게 엄마에게 “고모가 우리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를 외우라고 알려 주었는데 우리함께 외워요”라고 말했

다. 금방 외우자 담장이 무너지면서 마당에 찻던 물이 순간에 빠져 물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의 물건들이 손실 되지 않았다. 홍수가 지난 후 이집은 돌아갈 곳이 없는 고향사람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람들은 10여 명이 홍수에 밀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 했다.

### 파룬궁을 구출한 마을사람들이 모두 위험에서 벗어나다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을 구출하기 위해 서명하고,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라고 요구한 촌민 모두가 이번 홍수 위험에서 벗어났다. 난커우첸 마을 파이프공장 부근에서 수해를 가장 엄중히 입었는데, 가옥이 홍수에 밀려갔고 어떤 집은 온 가족이 조난을 당했다. 그러나 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을 구하기 위해 서명 했었는데, 그들은 선량한 행동으로 생명을 보장받아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다.

파룬궁수련생 샤오량(小梁)의 친척은 모두 난커우첸 마을에 살고 있다. 두 시누이, 시동생, 이모까지 20여 명이 이번 홍수에서 누구도 위험에 봉착하지 않았다. 그의 조카딸은 외출할 일도 없었는데 폭우를 무릅쓰고 외출해 재난을 면했다. 그리고 며느리 친정식구도 모두 무사하다.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안 그들은 이미 가입했던 중공 사당(邪党)조직에서 모두 탈퇴했다.

한 파룬궁수련생의 모친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대문을 닫으러 나갔다가 홍수에 밀려갔다. 할머니는 황급히 떠내려 오는 물건을 잡고 힘껏 끌어(너무 놀라 끌어안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도 못했다)안고 물결 따라 2 리 남짓이 떠내려가다가 나무를 발견하고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사람들에게 구원 받아 언덕에 올라 왔다. 이 파룬궁수련생의 집에는 물이 부엌변두리에까지만 들어 왔고 땅에는 한 층의 진흙이 얇게 깔렸다. 만약 할머니가 대문닫으러 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위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 2천여 명 군중이 또 연명으로 화렌유를 구출

(밍후이왕 통신원 천진에서 보도) 고의로 7년 중형을 선고한 데 항의해 일 년 넘게 단식하고 있는 파룬궁수련생 화렌유를 구출하기 위해 807명의 시민이 연명으로 성원했으나 중공당국은 여전히 불법 감금하여 박해를 가하고 있다. 한 달 동안 또 2008명 군중이 연명으로 위험에 처한 화렌유 구출을 지지했다. 연명 인수가 이미 2815명에 달하며 연명 성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 류요진이 길림성 훈춘시에서 납치, 노동교양당한 경력

[밍후이왕] 흑룡강성 파룬궁수련생 류요진(刘耀珍 58세)은 2008년 4월 8일 길림성 훈춘시에서 납치되어 노동교양 박해를 당했다. 류요진은 장춘여자감옥에 감금되어 노역과 전기 충격을 당했다. 매일 사악한 경찰의 고함소리, 때리고 욕하는 소리, 전기 곤봉 방전 소리가 사람들의 심장을 무섭게 옥죄어 들게 했다.

아래에 류요진 여사의 박해자술 일부를 소개한다.

### (1) 길림성 훈춘시公安국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

2008년 4월 8일 오전 10시경 나는 길림성훈춘시에서 파룬궁진상 전단지 붙이다 경찰에 납치되어 훈춘시公安국 6층으로 끌려갔다.

사무실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명은 류홍(刘洪), 한명은 리강(李强)이라 불렀다. 류홍은 50세가 넘는 남자였는데 질문하며 기록을 했고 리강은 20세가 넘는 조선족이었는데 사악한 자였다. 벽돌 한 장만한 선 안에서 있게 하고 선을 넘기만하면 구두발로 나를 힘껏 차고, 수갑으로 두손을 조여 손이 찢빵처럼 부어올라 일주일 지나서야 붓기가 빠졌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을 되찾게 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한 경찰이 “오늘은 너를 때리지 않았지만, 이전 같았으면 진작에 실컷 패주었을 것이다”라고 악에 받쳐 말했다. 내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중년 뚱보 남자가 들어왔다. 검붉은 얼굴을 가진 이자는 대걸레 자루로 나의 두 팔을 죽어라고 때린 후 따귀를 두 번 눈에서 불이 번쩍

일게 때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자는 진상자료 출처와 수련생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좀 있다 저 녀를 달아매고 패줘라. 그래도 말 안하나 보자”고 시켰다.

얼마 되지 않아 또 바깥 마른 남자가 왔다. 조선족 같았는데 나를 보고 “네가 말만하면 국장에게 내가 보증을 서서 너를 풀어 주겠다”고 회유책을 썼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말은 다 했고(진상을 말하고, 真, 善, 忍을 수련하여 모든 병이 다 없어진 사실) 진상자료는 택시에서 주운 것이라고 했다. 그자는 구두발로 또 나를 힘껏 걷어찼다.

악행을 저지른 자가 악보를 받았다. 4월 8일 한시경에 뚱보 경찰이 나를 때리고 5시경에 식당으로 갔다. 파출소에 나를 감금하고 손발을 큰 걸상에 족쇄로 채운 후 어린 경찰 4명이 나를 지키게했다.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니 어린 경찰이 나를 데리고 가서 휴지를 주며 부어오른 나의 손을 보고 “수갑을 고정시켜 채우지 않으면, 움직일수록 죄여 들어요”라고 말했다. “자네는 참 착한 청년이 구만.” 그는 급히 “다른 사람에게는 제가 착하다는 말을 하지마세요”라고 당부했다.

중공사당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되기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밥을 먹으러 간 자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한 경찰이 “왜 뚱보는 보이지 않아요?”라고 묻자 “심장이 아파서 약 먹으러 집에 갔습니다”고 대답했다.

대외적으로 개방한 도시인 훈춘에서公安원마저 법을 지키지 않고, 나

를 24시간 넘게 불법 감금하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으며, 세 끼를 밥도 물도 주지 않았다. 9일 오후 나는 찢빵을 몇 개 달라 해서 먹었다. 그들에게 나를 24시간 넘게 감금했다고 말하자 한 경찰이 책상을 치면서 “말하지 않으면 48시간이라도 감금한다”고 소리질렀다.

4월 9일 오후 2시가 넘어 그들은 급히 나를 구류소로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가방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 경찰이 “그래도 또 돌려달라고 하는가?”고 말했다. 나는 나의 물품은 반드시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가방안의 물품을 점검해 보라고 했다. 가방에는 인민폐 1천 5백여 위안과 휴대폰이 있었다. 한 선량한 경찰이 “자녀가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구치소에 가지고 가면 몽땅 써버릴 수 있으니 제가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고 제안했다. 그 마음씨 착한 경찰은 돈을 보관했다가 20일 후에 나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 (2) 법제과 직원이 사기를 치다

구치소에서 매일 3 끼를 워터우(窝头, 옥수수 가루를 원뿔 모양으로 빚어서 찐 음식) 한 개에 멸건 국물 한 사발을 주었다. 첫 며칠은 수저도 주지 않았지만 사실 쓸 필요가 없었다. 국물을 마신 후 남은 무나 배추 조각을 워터우로 꼭 찍어 먹으면 식사는 끝난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이 나를 찾아 왔다. 내가 신분을 물으니 한 사람은 말없이 가버리고, 한 사람은公安국 법제과에서 온 왕 씨 라고 했



다. 그는 질문하며 기록했다. 나는 파룬궁은 무엇이며, 정치 망나니 강택민(江泽民)이 장악한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잔인하게 탄압한 진상을 말했다.…… 며칠 후 왕 씨가 병이 있으면 풀어 주고 없으면 일 년 노동교양을 시킨다고 하면서 나에게 신체검사를 시켰다. 두 번 신체검사에서 모두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 그러나 왕 씨는 2008

년 4월 29일 오전 5시경에 나를 길림 장춘여자노동교양소로 보냈다. 그들은 나의 남동생이 장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장춘에서 재검사를 받은 후 병증이 발견되면 동생과 함께 즉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장춘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나의 동생이 이미 장춘에 도착했다고 전화로 나에게 알려 주었다.

장춘에 도착해 내가 가족을 찾자

그들은 나의 동생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들어가서 신체검사를 하자고 했다.

그들은 속임수로 나를 병원에 남겨 놓고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소위 법률기관의 직원들이라는 자들이 나의 가족에게는 통보도 하지 않고, 거짓말로 나를 기만해 장춘까지 데려다 1년 21일을 불법 감금했다.

## 연변 파룬궁수련생의 억울한 옥살이에 가족이 고소

연변주(延邊州) 파룬궁수련생 태호(泰浩), 류춘립(劉春立), 박문철(樸文哲) 등은 2012년 4월 17일 현지 중공(중국공산당) 경찰에 납치된 후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임)의 조종을 받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모함으로 불법판결 당해 2013년 5월 말 지린(吉林)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 가족은 최근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를 고소하고, 류춘립, 박문철, 태호를 조건 없이 석방하며, 즉시 강탈한 모든 현금과 재물을 되돌려주고, 심신에 끼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범죄에 가담한 관련 부서의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 고소장

피고인 : 지린성 연변주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강광(康芳), 주 '610'주임 위리치(於立啓), 시 610주임 창정(常征), 연길시법원 김영옥(金英玉) 등, 연길시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리성철(李成哲) 등 경찰

### 고소사 :

납치 죄, 무고 모함 죄, 비방 죄, 불법가택침입 죄, 불법수색 죄, 강탈 죄, 불법으로 국민의 신앙을 박탈한 죄, 불법 감금 죄 등



### 고소 청구내용 :

- 1, 즉시 류춘립, 박문철, 태호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
- 2, 신체와 정신적 상해에 대해 보상할 것.
- 3, 강탈한 모든 현금과 재물을 즉시 돌려주고, 손상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할 것.
- 4, 관련 부서의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

### 사실 및 이유 :

#### 공안 경찰이 납치, 고문, 학대하다

2012년 4월 17일,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태호는 모친 김순선(金順善)과 이기옥(李奇玉), 그리고 다른 1명과 함께 외지에서 신당인(新唐人-NTD) 위성텔레비전을 설치한 뒤 버스정류장에서 연길 경찰에게 납치돼 고문실에 갇혔다. 그곳에는 전기 고문을 가하는 전문도구가 있었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씌우고 전류 강약을 조절하며 고통의 정도를 높였다. 30대인 태호를 특히 잔인하게 고문했는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명소리는 매우 듣기 거북했다. 교대로 그를 고문하던 경찰들도 모두 피곤해 했다.

두 노년 부인 이기옥과 김순선도 피해가지 못하고 고문당해 몇 번이나 호흡이 멈춰 응급실로 실려갔다. 김순선 노인은 다시 세뇌반으로 납치되었다. 세뇌반이 끝나고 노인은 다시 들것에 실려 구치소로 납치되어 그곳에서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하다.

같은 날 저녁 7~8시경, 연변 경찰 리성철 등은 강제로 파룬궁수련생 류춘립과 박문철을 납치했다. 강도처럼 류춘립의 가산을 모두 몰수하고 집세 수천위안, 컴퓨터 한대, 휴대폰 몇 대 등 많은 물품을 강탈해갔다. 류춘립의 연공하지 않는 누나까지 10여 시간 불법감금 하고나서 풀어 주었다. 류춘립의 가족이 리성철 등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었고 결국 1천여 위안만 돌려받았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국가보안대대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 먼저 사람을 납치하고 그 뒤 방에 들어가 강탈하며, 고문하는 행위는 강도보다 더 심한 강도다.

18일 오전 경찰 10여 명이 다시 박

문철의 세집에 들이닥쳐 컴퓨터, 현금 등 귀중품들을 모조리 강탈해 갔다.

### 검찰원의 월권행위 - 변호사 개입을 저에

태호 가족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오래지 않아 변호사가 협박을 당해 계약을 파기했다. 가족은 다시 외지 인권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연길시 검찰원은 검찰원에서 이미 당사자의 변호사를 지정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찾은 인권 변호사를 거절했다. 검찰원은 법률 집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관법과 변호사법의 실행을 저해했다.

### ‘610’ 이 공안 검찰 법원을 조종 - 법원이 갑자기 비밀리에 개정

2013년 1월 5일 오전, 연길법원은 태호, 류춘리와 박문철에 대해 불법 개정 했다. 법원직원은 속아서 법원에 온 수련생 가족을 구치소로 데려갔다. 불법 개정은 이미 세밀하게 배치되었고 많은 경찰을 출동시켜 허세를 부렸다. 불법 개정 과정에서 수련생과 가족이 변호하지 못하게 했고 마치 연극을 하듯이 근근이 형식만

차렸을 뿐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이公所당한 이유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3명은 모두 판결 받았는데 류춘리 3년, 태호 3년이고 박문철의 판결은 불투명하다.

### 한국 위성TV 보급 설치는 합법적

헌법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각국에서 하늘에 발사한 위성신호는 모두 공개적이고 공유하는 것이기에 이를 수신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범한 모든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민법통칙(民法通則)’ 규정에 따르면, 어떤 부문과 개인이 독단적으로 국민이 설치한 위성텔레비전 수신기를 떼어낸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여 침권자에게 손실을 배상하고 강도죄로 관련자를 기소할 수 있다. 국민이 설치하는 위성 신호 안테나는 국가에서 인정해 생산하고, 상인이 정상적으로 경영해서 국민이 시장가격으로 사온 것이므로 합법적인 행위이다.

2002년 11월 1일, 국무원은 ‘국무원에서 제1차 행정심사비준항목 취소 관련에 관한 결정’(국발 [2002] 24호)을 발표하여 명확하게 제1차 행정심사항목 총 789가지를 취소한다고

했다. 그 중 제567조항은 ‘위성텔레비전방송 지면접수시설 지정판매를 심사 비준하는’ 위성텔레비전방송 지면접수시설관리 규정(국무원령 제129호)이다. 원래의 국무원 제129호령은 이미 취소되었다! 이상한 것은 일부 기능 부서에서는 여전히 이 명령을 높이 추켜들고, 백성이 위성텔레비전을 수신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민이 법률을 모른다고 속이며 뻔뻔스럽게 법을 위반하고 있다.

고소인은 관련부문에 피고인을 입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헌법’, ‘형사법’, ‘경찰법’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을 어겼기에 이상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고소인은 중국사회에 정의를 지키는 인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간부가 있다고 믿는다. 이 일을 엄숙하게 처리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범한 자가 벌을 받고 무고한 사람은 자유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만약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안건을 국제법정에 제출해 처리해달라고 할 것이다.

이상

고소인: 류춘리 가족, 박문철 가족, 태호 가족

2013년 7월 1일



## 헤이룽장 성 노동교양소 해체



(밍후이왕 통신원 흑룡강 보도) 흑룡강성 노동교양소는 2013년 9월 6일 마지막 파룬궁 수련생 가족사 시의 류리제(劉麗傑)를 석방함으로써 해체되었다.

흑룡강 노동교양소는 해체시에도 악행을 저질렀다. 이 노동교양소는 9월 3일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수련생 5명을 하루는 2명, 또 다른 날에는 한 명을 석방했다. 그리고 떠나는 수련생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우리는 당

신을 박해하지 않았지요?”라고 하며 사전에 작성해 놓은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경찰은 수련생 추이슈원(崔秀雲)에게 “우리는 당신을 때리지 않았지요?”라고 물었다. 추이슈원은 경찰의 촬영카메라를 향해 종이를 찢어버리며 “때렸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흑룡강성 노동교양소는 사람은 다 떠나고 빈 건물만 남았다. 건물안은 난장판이고 경찰은 모두 자신의 살

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을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 하얼빈 수련생은 9월 6일 류리제가 떠난 후 그 건물 앞에서 폭죽을 한 줄 터트렸다.

